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

전주시-전북자치도-대한역도연맹,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오는 2027년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7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역도연맹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역도연맹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회의 유치와 준비, 운영 전반에 걸쳐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대한역도연맹은 국제행정과 경기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대회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대회 준비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정비 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은 이날 "대한역도연맹이 가진 경기 운영 노하우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역도의 발전은 물론, 국제스포츠투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단이 최고의 기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역도연맹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아시

아역도연맹(AWF)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회원국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고 있다. /권희성 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현장 소통 강화

전주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전북자치도전주지역 건축사회 찾아 간담회 가자

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역 건축사회(회장 박광성)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과 변동현 건축과장을 비롯한 지역건설지원팀이 각 기관을 방문해 도내 대형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현황을 공유하고, 전주시와 건설업

계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지역건설업체 현황 △지역건설업체의 최근 수주 실적 및 현황 △전주시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목표 △현제 전주에서 진행 중인 주요 공사 현장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또한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민간·공공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지역건설업체 수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민간공사 중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반건축물은 물론 공공공사까지 목표를 확장해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힘쓰고 있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은 이날 "협회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도내 3300여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전주시와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공식 소통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주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지역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 영화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 청년 영화인들과 소통 나서

현장 어려움 공유·영화 영상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전주시가 전주와 대한민국 영화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청년 영화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 영화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영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영화학교와 마스터스쿨, 도제식 프로그램의 수료생 및 교육생들과 영화 관련 단체·기관 재직 청년들이 참여해 영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영화영상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먼저 전주독립영화의 집,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주요 인프라 운영 현황과 청년 영화인의 실질적인 창작

활동과 연계된 제작 지원 사업, 인력 양성사업 등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작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건의 사항에 대하여 우범기 전주시장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소통을 이어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영화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2월 생계급여 조기 지급

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월 생계급여를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중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조

치는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2월 생계급여 수급자 전원으로, 지급 금액은 기존에 책정된 2월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급여 지급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수급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업단지와 하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연휴 전까지 취약지역 순찰과 함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관리 공백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삼천 등 주요 하천, 하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휴 기간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방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푸드테크 산업 기반 마련

신유정 의원 대표 발의 육성·지원 조례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427회 임시회에서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한 지역 농식품 기업의 디지

털 전환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및 사무의 위탁 근거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유정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농식품 기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